

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





서울
독립운동의
역시현장

발간사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정도 600년의 서울은 그 오랜 세월 내내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까지, 수도 서울은 그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동안 딱 한 차례, 수도 서울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대한제국의 황도(皇都) 한성부에서 경기도에 속한 식민지배의 거점 경성부로 전락한 후, 서울은 총칼을 든 일제 헌병경찰의 감시와 탄압을 가장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울은 항일독립운동의 본산이자 심장부가 되어 갔습니다. 유관순·김창옥·나석주 등 수많은 선열들이 3·1운동과 6·10만세운동으로 독립의 불씨를 살렸고, 조선총독부와 중로경찰서·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져 온몸으로 항거하였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항일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서울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지취를 다듬어 보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정무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126개에 달하는 서울지역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사진자료와 함께 생생히 소개하고 찾아가는 길 또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무쫘록 이 책을 통해서 순국선열의 투혼과 숭고한 희생 위에서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가 꽃피웠음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뼈저리게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문

개항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문을 연 조선사회는 부국강병을 이루어 성공적인 근대화와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에 실패하고, 결국 경술년(1910) 8월 29일 한국의 '통치권'을 일제에 '양여'함으로써 험난한 식민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일제강점 후 서울은 조선왕조의 독립된 수도 한성부에서 경기도에 속한 일개 부(경성부)로 떨어졌으며, 우리에게 낯선 이름인 경성, 일본식 발음 '케이조(개(가)이(요)조)'로 불려졌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수도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고, 항일독립운동의 중심무대이자 최전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 등이 집중된 서울은 일제의 혹독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해방의 그날까지 독립을 향해 치열한 독립항쟁을 계속하였습니다.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을 비롯하여 독립을 향한 만세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등 일제침략의 권부를 향해 폭탄을 던졌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당대

의 사진 자료와 함께 독립운동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와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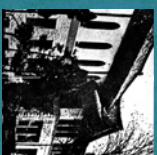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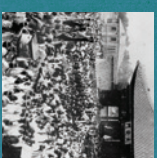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선열들의 치열했던 독립항쟁의 자취와 숨결을 느끼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선열들의 목숨을 내건 희생에 있음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내는데 협조해 주신 집필자와 감수자, 보존처와 독립기념관 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8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준희

차례



개관 서울지역의 독립운동과 역사현장 • 01

1부 대한제국기 구국운동의 현장 • 10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 12

경운궁(덕수궁) _____	12
환구단 터 _____	14
건충단 터 _____	16
독립문 _____	18
독립관 터 _____	20
손익호텔 터 _____	22
만민공동회 집회 터 _____	24
선문출판사 터(독립신문 인쇄 터) _____	26

계몽운동 • 28

대한매일신보사 창간사옥 터 _____	28
황성신문사 터 _____	30
상동교회 터 _____	32
이회영·이시영 집터 _____	34
기운흥학회·기운학교 터 _____	38
서북학회 회관 터 _____	40
신문관·조선광문회 터 _____	42

군인불기와의 연투쟁 • 44

훈원원 터 _____	44
시위보병 제연대 제1대대 병영 터 _____	46
대한제국 군대해산시 시기전 터 _____	48
민영환 집터 _____	50
표훈원 조병세 순국유적지 _____	52
이재명 의거 터 _____	54
옛 서대문형무소 _____	56

2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현장 • 58

3·1운동 • 60

중앙고등보통학교 숙직실 터 _____	60
최린·이상재 집터 _____	62

김성수 숙소 터 _____	64
김송희 집터 _____	66
천도교 중앙총부 터 _____	68
유심사 터 _____	70
손병희 집터 _____	72
보성사 터 _____	74
이종일 집터 _____	76
조선독립신문 인쇄 터 _____	78
테화관 터 _____	80
탐관공원(파고다공원) _____	82
보신각 앞 3·1운동 기념 터 및 함성정부 선포 터 _____	84

대한문 앞 독립만세시위 터 _____	86
선운전광장 독립만세시위 터 _____	88
마포 전차중점 독립만세시위 터 _____	90
남대문역전 학생단 독립만세시위 터 _____	92
용신인쇄소 직공 파업시위 터 _____	94
상준원 터 _____	96
봉황각 _____	98
남대문밖교회 함태영 사택 터 _____	100
세브란스병원 이감성 사택 터 _____	102
월성보통학교 터 _____	104
중앙학원 터 _____	106
대각사 _____	108
심우장 _____	110
중앙YMCA 회관 터 _____	112
대관원 터 _____	114
승동교회 _____	116
정동교회 이필주 사택 터 _____	118
강기덕 숙소 터 _____	120
배재고등보통학교 기숙사 터 _____	122

민족주의 운동 • 124

한성오 집터 _____	124
김사국 숙소 터 _____	126
동화역방 터 _____	128
이병철 집터 _____	130
정신여학교 터 _____	132
전철 집터 _____	134
최익환 숙소 터 _____	136
의친왕 이강 저택 터 _____	138



조선물산장려회 회관 터	140
조선교육협회 회관 터	142
권오설 아지트 터	144
감고당 민창식 집터	146
조선민중회 사무소 터	148
신간회 창립본부 터	150
신간회 본부 터	152
신간회 경성지회 회관 터	154
여운형 집터	156

이연투쟁 ·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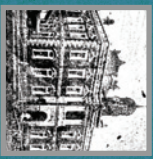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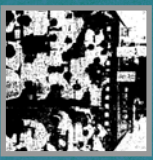
김익상 의거 터	158
김상욱 의거 터	160
나석주 의거 터	162
강우규 의거 터	164
송혁선 의거 터	166
부민관 폭탄의거 현장	168

사회주의운동 · 170

서울청년회 회관 터	170
최요회 회관 터	172
북공회 회관 터	174
조선노동당 사무소 터	176
무신자동맹회 회관 터	178
전우회 회관 터	180
아서원 터	182
김찬 숙소 터	184
구연홍 집터	186
조선지광사 터	188
박한영 집터	190
미아케 관사 터	192

학생운동 · 194

조선학생회 회관 터	194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관 터	196
박희균 하숙 터	198
김재문 하숙 터	200
파조교 6·10만세 선창 터	202
해회동 관주학생운동 제1차 서울학생 항일시위 터	204



송계월 하숙 터	206
조선청년회연합회 창립회관 터	208

사회운동 · 210

조선청년총동맹 회관 터	210
신흥청년동맹 회관 터	212
조선노동공제회 회관 터	214
조선노동총동맹 회관 터	216
대동인쇄 직공 파업 터	218
조선항쟁시총본부 터	220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WYCA) 회관 터	222
조선여성동우회 회관 터	224
근우회 회관 터	226
천도교소년회 사무소 터	228
조선소년총연맹 회관 터	230

문화운동 · 232

동아일보 · 종의일보 창간사무 터	232
동아일보 광화문 사무	234
조선일보 · 조선중앙일보 옛 사무	236
중앙일보 · 조선중앙일보 사무 터	238
시대일보 사무 터	240
천도교중앙대교당	242
각황사 ·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터	244
조선불교청년회 회관 터	246
조선어학회 회관 터	248
개명구락부 · 조선어학연구회 터	250
진단학회 터	252
조선민속학회 터	254
조선발명학회 · 과학지식보급회 터	256
한성도시주식회사 터	258
한남서림 터	260
한양의원 터	262
단성사	264
조선극장 터	266

부록

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 일람표 · 268

서울지역의 독립운동과

역사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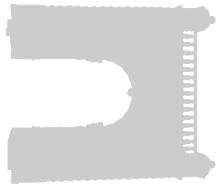
서울은 대한제국을 포함한 조선왕조 5백년의 도읍지였다. 비록 국권상실 후 수도로서의 지위를 잃고 중앙 직할의 황도(皇都) 한성부에서 경기도에 소속된 일개 부(경성부)로 전락했지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서울은 여전히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중심지였다.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운동들이 서울을 무대로 해서 일어났고, 우수한 인물과 단체들 또한 서울을 주요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때문에 서울지역의 독립운동은 국내 독립운동 일련의 흐름을 대변하고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를 시기 별·주체별로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항 후 한국사회는 만국공범과 자본주의 체제로 대표되는 서구 열강 중심의 근대적 세계질서에 발을 들여 놓았다. 따라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밖으로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국가의 자주독립을 확보하고, 안으로 신분제 철폐를 비롯한 사회개혁을 통해 근대 국민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식산흥업(殖産興業)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자주적 근대화도 요약될 수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과 신분제의 폐지, 근대적 재정체제의 도입을 전면에 내세운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향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 북촌의 집권층 소장 엘리트들이 주도한 갑신정변은 민중의 요구를 반영해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대신, 외세에 의존해 상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일러두기

- 이 책은 서울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을 소개하여 선열들의 치열했던 민족항쟁의 자취를 다듬어 모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이 책은 대한제국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을 소개 정리하였다.
- 이 책은 현재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독립운동 사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 책에서는 소재지와 관련사건·교통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대의 관련 사진과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 문장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고유명사 등은 ()안에 한문을 병기하였다.



이후 한국의 민족운동은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을 거치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신분제 철폐를 비롯한 근대적 제도개혁과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주체로 국민을 만들어내고, 자주독립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각성시켜 민족공동체 내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국민국가의 기초를 놓는 작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그 같은 국민통합의 과제가 민족운동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독립협회는 동과 대한제국의 성립을 통해서였다. 고종은 1896년 2월 아관파천을 단행하여 친일개혁과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고종과 신정부는 양반 유생층의 보수 여론과 정동구락부로 대표되는 개혁세력의 개혁 여론을 절충하여, 구범을 중심으로 신범을 참작 도입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방침 아래 국론의 통일을 기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경운궁(덕수궁) 환궁 이후 친제건원(稱帝建元)의 여론을 받아들여 1897년 8월 먼저 '광무(光武)'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반포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환구단에 나아가 황제 즉위의 제친의식을 거행한 뒤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함으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전후해 서울 정동에 위치한 경운궁은 중립외교를 통해 열강의 세력균형을 유도하고, 갑오개혁 이래 위축된 군주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신구절충의 방향에서 추진된, 부국강병의 근대화 개혁 곧 광무개혁의 진원지가 되었다.

한편 아관파천 이후 신정권의 한 축을 이룬 친미개혁파 세력은 1896년 7월 정동구락부를 모체로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개혁 여론의 확산에 주력하였다. 그들

은 갑오 개혁과정권의 외세 의존적이고 급진적인 위로부터의 개혁노선을 비판하고, 민중계몽과 국민통합을 최우로 삼아 점진적인 개혁자강의 자주 개혁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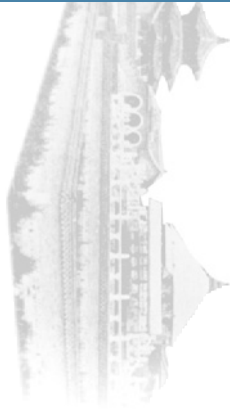
이를 위해 독립협회는 자주독립의 상징물로서 독립문을 건립하고, 개국기원절 경축행사의 개최, 태극기 제양과 애국가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흥군애국(忠君愛國)의 상징조작을 통해 대중적 차원에서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1898년 2월 구국 장소를 시발로 열강의 이권침탈과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토론회와 만민공동회, 의회개설운동 등을 통해 민중의 언론을 터주면서 '동포'라는 민족적 동질의식을 이끌어 냈다. 그리하여 개혁 개혁운동은 소수 개혁파만의 운동이 아닌 대중참여의 운동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혁 개혁운동의 거점공간이 아관파천을 전후해 양반 집권층의 집단거주지인 북촌에서 구미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의 집단거주지인 정동과 독립문·독립관이 위치한 서대문 밖으로 중심을 옮긴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정동은 서구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구 시민사회의 문화를 접하고, 국민국가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주요한 통로였다.

그런데 황제권을 흥군애국과 국민통합의 상징적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던 독립협회의 친제황권의 실질적 행사를 원했던 고종 사이에는 남기 힘든 장벽이 존재했고, 그것은 결국 1898년 말 독립협회의 해산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주권침탈이 본격화하면서 서울은 침략과 저항이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미국·영국·러시아 등 열강의 승인하에 1905년 11월 18일 경운궁 중명전에서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을사늑약을 억지 체결하였다.

그러자 일본의 외교권 박탈에 반대하는 투쟁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방의 유생과 농민들은 의병을 일으켜 그에 맞섰다. 장지연(張志淵)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황성신문》 논설을 통해 조약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렸으며, 민영환(閔泳煥)과 조병세(趙秉世) 등은 자결로써 항



거하였다. 고종황제 또한 각국 국기원수 앞으로 열강의 공동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무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협박해 1907년 7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한일협약(정미 7조약)을 강요해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과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이렇게 일제의 주권침탈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권회복을 목표로 하는 자강계몽운동과 의병항쟁이 전개되었다. 자강계몽운동은 독립협회 이래 개화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유학자층과 신지식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일제에 주권을 침탈당한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 하에, 정치·교육·산업의 진흥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국권을 회복해 나갈 것을 주창하였다.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그에 비해 의병항쟁은 즉각적인 반일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이들 두 운동은 서로 평행선을 그으며 대한제국 말기 국권회복운동의 양대 흐름을 형성하였다.

먼저 의병투쟁과 관련한 서울에서의 움직임은 군대해산식 당일 해산군인들이 시가전을 벌이고, 13도 연합의병부대가 서울진공작전을 펼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그것은 일본에게 빼앗긴 서울을 탈환하는 게 의병투쟁의 목표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해산군인들의

무장봉기는 의병투쟁이 ‘국민전쟁’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놓았다.

다음으로 자강계몽운동은 신민회 결성을 전후해 평양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기는 했어도 여전히 서울이 그 중심점이 되었다. 대한제국 말기 자강계몽운동은 정치·사회단체의 조직, 학회의 설립과 신교육의 보급, 언론계몽운동, 식산흥업운동과 국제보상운동, 국학운동과 신종교운동 등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특히 두각을 나타낸 것은 신교육운동이었다. 교육구국운동은 서울에 본부를 둔 서북학회·기호총학회 등의 학회가 각각 자신의 출신 지역에 사립학교 설립 붐을 일으키면서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다. 또한 1907년 4월경에는 안창호의 주도로 비밀결사 신민회가 조직되어 국민 사상과 관습의 혁신, 발육과 산업의 개량, 독립자유와 신문명국 건설 등의 의제를 가지고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신민회는 국권상실 후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주도하면서 3·1운동 후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태가 되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함에 따라 서울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청계천을 경계로 한 북쪽의 조선인 구역과 남쪽의 일본인 구역으로 도시공간이 나뉘어졌다. 이 때 조선인의 대표적 거리가 종로였고, 일본인의 대표적 거리가 진고개(本町通, 현 중무로)였는데, 일제 침략과 더불어 진고개를 배후로 한 을지로·남대문로 일대에는 동양척식회사·조선식산은행·조선은행 등 경제침탈의 전진기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남대문을 잇는 서울 도심의 남북축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관창가가 조성되었다. 1926년 1월 남산 왜성대에서 이전한 조선총독부의 신청사가 경복궁 근정전을 가로막으며 들어섰고, 그 앞으로 경기도청·경성부민관·경성부 청사 등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남산에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상징이라 할 조선신궁이 들어섰고, 남대문 밖에는 1925년 9월 완공된 국제 규모의 경성역 신역사가 식민지 조선의 수위도시 경성부의 관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용산역 주변 신용산 일대에는 철도국을 비롯한 철도시설과 조선군사령부를 비롯한 군사시설이 진을 쳤다.

이렇게 일제 침략의 거점들이 서울의 남북으로 펼쳐진 가운데 시대문과 동대



문을 가로지르는, 조선인의 거리 종로 일대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먼저 남녀노소와 지역계층을 망라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신기원을 연 3·1운동이 종로의 배후지 북촌에서 기획되어, 종로 거리에서 깃발을 올렸다. 국내에서 3·1운동의 초기 조직화는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그리고 학생세력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가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을 중심으로 운동의 일원화를 이루어내면서 금류를 뒀는데, 그 주요 거점이 바로 종로와 그 배후 주거지인 북촌이었다.

북촌은 조선시기 집권층 양반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갑오개혁과 일제 침략을 거치며 공간적 성격이 변화가 나타났다.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 허용되어 수송동에 각황사가 창건되고, 인국동에 양반들의 개신교회로 인동교회가 설립되었으며, 민중종교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의 중앙총부가 송현동 현 덕성여중 자리에 자리를 잡는 한편, 권립 한성중학교(경기고의 전신)와 휘문학교·중앙학교 같은 신식학교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거점이라는 공간적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같은 위상을 바탕으로 북촌은 3·1운동을 일구어낸 모태로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한편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시위는 탑골공원보신각기념비전으로 이어지는 종로거리에서 역사적 깃발을 올렸는데, 그것은 대한제국이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 형성된 '민의를 마당'으로서 종로의 공간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이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면 서 《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의 신문과 《개벽》 등의 잡지, 청년회를 비롯한 노

운동·사상운동·여성운동·형평운동·소년운동 방면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속속 출현했는데, 그 거점 공간 또한 서울의 종로 일대였다. 한편 대한민국청년회교단과 대한민국에국부인회·대동단 등의 비밀결사가 3·1운동 직후 속속 조직되어 상해 임시정부의 관련을 맺고 서울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22년 2월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한 외교 독립의 마지막 기회로 기대를 걸었던 워싱턴군축회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비밀결사운동은 임시정부의 분열과 맞물려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불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운동 등의 경제적·문화적 실력양성운동이 그 뒤를 이었다. 1923년 결성된 조선불산장려회와 조선민립대학기성회는 서울에 거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으나,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내부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불산장려운동의 경우 '중산층의 이기적 운동'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에 부딪쳐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는데, 이후 사회주의운동이 점차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처음에 사상운동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운동은 1924년 4월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의 결성을 통해 대중운동의 전진기지를 마련한 데 이어, 1925년 4월 전위당으로 조선공산당을 창립함으로써 하나의 진영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내부에 1922년 4월 조선청년회연합회에서 탈퇴해 사회주의자들의 당적 존재로 성격을 전환한 서울청년회와 코민테른 코르부로 국내부와 연결된 화요회, 그리고 일본 동경 유학생 출신이 주축을 이룬 북풍회 사이에 각별한 경쟁관계가 존재해 적지 않은 분과투쟁이 일어났다. 공간적 측면에서도 서울청년회는 건지동 회관을 중심으로 지금의 우정국로를, 화요회와 북풍회는 낙원동에서 재동에 이르는 낙원동길을 주요 활동 동선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제1·2차 조선공산당은 화요회와 북풍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1925년 11월 신의주사건으로 제1차 당조직이 무너지고 이후 출범한 제2차 당은 내부의 통일을 도모하고, 중국의 국공합작과 같은 민족협동전선의 한 형태로 국민당을 조직하려 하였다. 때마침 순종이 승하하자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



년회는 1926년 6월 10일 인산일을 기해 3·1운동과 같은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권오설(權五肅)을 총책임자로 하는 6·10운동투쟁지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거사에 쓰일 격문이 사전에 발각되어 6월 7일 권오설이 일제경찰에 체포당함으로써 제2차 당조직까지 탄로 나고 말았다. 그 뒤 6·10만세운동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주축을 이룬 ‘사적동계’와 ‘통동계(通洞系)’ 학생들의 주도하에 인산 당일 단성사 파조교 앞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국장행렬을 따라 전개되었다. 한편 그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조선공산당은 1926년 12월 기존의 내부 분파를 아우른 통일적 전위당으로 제3차 당(MI당)을 조직하고, 민족협동전선 신간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1927년 2월 15일 종로 YMCA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으로, 120~150여 개의 지회에 2~4만의 회원을 가진 일제 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였다. 신간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당초 목표했던 민족적 정치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했지만, 지회 차원에서 사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다른 사회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신간회 또한 서울 종로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때문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는 일제 경찰서의 수준을 넘어서는 개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1923년 의열단원 김상옥(金相玉)의 종로경찰서 투탄사건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일제 공권력의 상징에 정면으로 맞선 장렬한 의거였다. 이 밖에도 의열단은 1921년 김익장(金益相)의 남산 조선총독부 투탄의

거, 1926년 나석주(羅錫驍)의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회사 투탄의거 등을 통해 일제 침략의 심장부를 겨냥한 의열투쟁을 가열치게 전개하였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지배기구와 침략 원흉들에 대한 암살·파괴활동은 비단 의열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1919년 강우규(姜宇奎) 의사가 남대문역 광장에서, 1926년 송학선(宋學先) 의사가 창덕궁 금호문 앞에서 각각 사이토 조선총독의 주살을 시도했고, 1945년 해방을 한 달 앞두고는 조문기(趙文紀)를 비롯한 열혈청년들이 친일파 일당의 이세이민족분격대회가 열리는 경성부민관에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들어 일제의 통제 강화로 정치적 합법공간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서울의 민족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공산당계건운동·혁명적 노동조합운동·민체동맹·학생독서회같은 비합법 지하활동과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화운동 등 비롯한 민족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의 독립을 향한 강한 열망은 일제 말기 일본 군국주의 권력이 전시총동원체제를 가동하며 자행한 단발미적 반악으로도 꺾을 수 없었다. 1944년 8월 여운형의 주도로 서울 북촌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조선건국동맹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건국동맹은 중국 관내 연안의 조선독립동맹,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민족의 대동단결과 거국일치로 해방의 그 날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8·15 해방을 맞이어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국내의 초기 해방정국을 이끌어 나갔다.